



부산상공회의소

【보도일시】

2024년 7월 18일(목) 10:00 이후

보도자료

담당 : 조사연구팀 서영훈 과장대리
(990-7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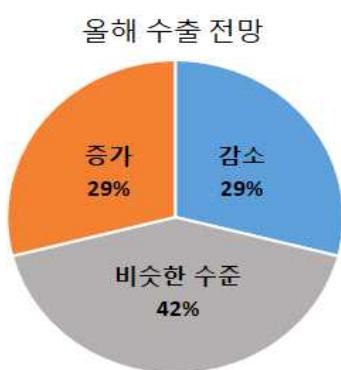
부산지역 수출환경 실태 조사

올해 지역기업 수출 약세 전망, 전국상황과는 대조적

- ▶ 응답기업의 42% 약세 보였던 전년도 수준 전망.. 수출 증가와 감소는 각각 29%
- ▶ 특정국 수출의존도 높은 편... 수출의존도 분산에 무게를 둔 수출 다변화 전략 필요
- ▶ 해외경쟁업체 대비 품질 좋으나, 가격경쟁력은 취약... 물류비 등 비용지원 있어야

부산지역 주요 수출기업들의 올해 수출은 약세를 보였던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전국적인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8일(목), 지역 주요 수출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지역 수출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출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수출증가와 감소로 응답한 기업은 각각 29%로 나타났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부진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응답기업의 71%가 올해도 수출 약세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 진입하면서, 해외거래선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출다변화와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72%가 5개국 이상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높은 편으로 응답기업의 91%가 특정국가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었으며, 그 중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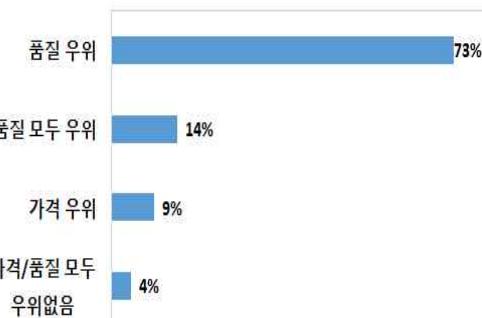
최근 3년간 신규 국가 수출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86%가 ‘없다’고 응답하여, ‘있다’고 응답한 기업비중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신규 시장 개척 방법으로는 정부지원이나 통상정책보다는 기업자체의 판로확대 노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시장 개척 비중이 낮고, 그마저도 기업 자체 노력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판로개척 지원사업이나 통상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보호무역 정책이 심화되면서 지역 수출기업들은 과거대비 글로벌 경쟁이 다소 증가했다고 인식했다. 응답기업의 28%가 글로벌 경쟁이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수출경쟁국으로는 중국을 꼽았다.

해외 경쟁업체 대비 경쟁우위 부문을 묻는 질문에는 품질 경쟁력을 꼽은 기업이 전체의 73%로 압도적이었다. 그 다음으로 가격·품질 모두 우위(14%), 가격우위(9%), 우위 없음(4%) 순이었다. 품질은 우수한 편이나 가격에 있어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과 수출품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수준이 향상될수록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수출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 경쟁업체 대비 지역기업 경쟁우위 부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물류비, 통관비 등 비용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홍해 사태와 미-EU의 높은 관세 부과에 대비한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최근 해상운임이 급등하면서 물류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수출국의 규제 완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역 수출기업들의 품질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취약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첨 부 : 부산지역 수출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1부.

부산지역

수출환경 실태 조사

2024. 7.



부산상공회의소

〈조사개요〉

1. 조사명

- 부산지역 수출환경 실태 조사

2. 조사목적

- 글로벌 수출입 환경 실태 파악 및 주요 정책과제 도출

3. 조사대상

- 부산지역 수출액 상위기업 210개사(응답 100개사)

4. 조사방법

- 조사표 기반 설문조사

5. 조사내용

- 수출 전망, 수출시장 다변화 실태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구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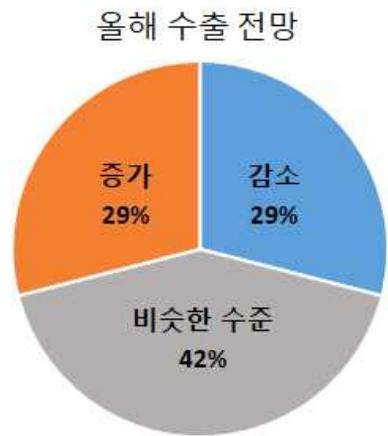
6. 조사기간

- 2024.5.20.~6.28.

1. 지역 주요 수출기업 올해 수출 전망

□ 올해 수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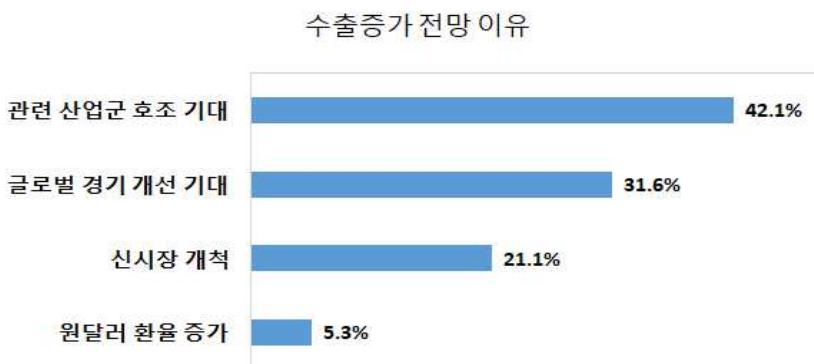
- 부산의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올해 수출전망을 조사한 결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42개사(42%)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와 감소를 전망한 기업은 각 29개사(29%)로 동일하게 나타남



-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에 있는 올해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
- 약세를 기록했던 전년도 수출실적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수출 증가를 전망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관련 산업군 호조와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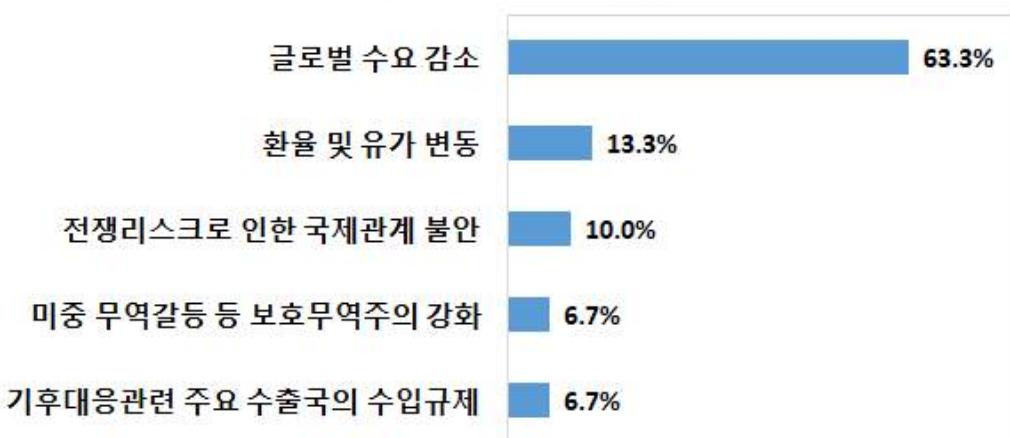
- 올해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관련 산업군 호조가 42.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 31.6%, 신시장 개척 21.1%, 원달러 환율 증가 5.3% 등 순
- 주로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 전방산업이 호조세를 보이는 업종에서 관련 산업군 업황 효과로 인한 수출 증가 전망
- EU, 캐나다 등이 선두로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수출감소를 전망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글로벌 수요 감소

- 올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글로벌 수요 감소가 6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환율 및 유가 변동 13.3%, 전쟁리스크로 인한 국제관계 불안 10.0%, 보호무역주의 강화 6.7%, 기후대응관련 수입규제 6.7% 등 순
-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교역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글로벌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긴축정책 전환도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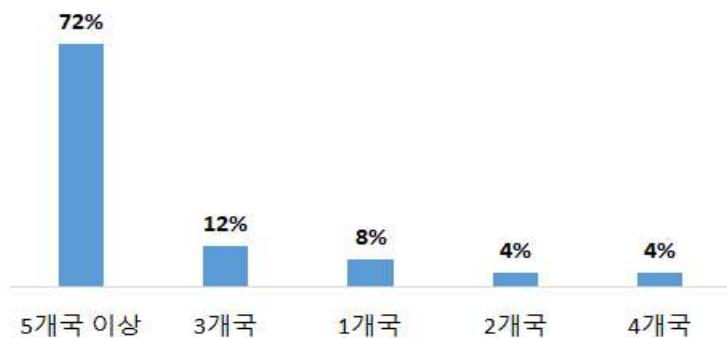
수출감소 전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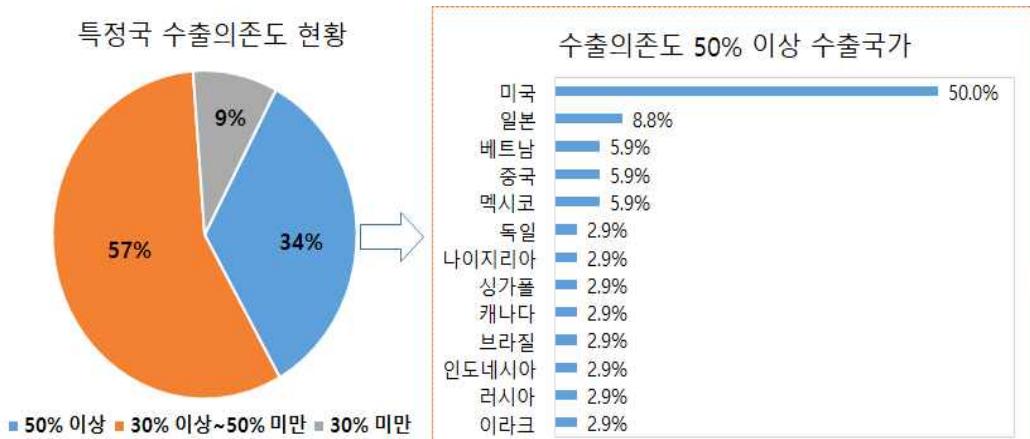
2. 수출다변화 실태

- 5개국 이상 수출하는 기업이 72.0%로 대부분 수출다변화를 하고 있음
- 현재 수출중인 국가수를 조사한 결과, 5개국 이상 수출하는 기업이 72%(72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개국 12%(12개사), 1개국 8%(8개사), 2개국/4개국은 각 4%(각 4개사) 등 순

부산지역 주요 수출기업의 수출국 현황



- 다만 특정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출의존도 30% 이상 수출기업이 91%, 그 중 대미의존도 가장 높아
-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기업은 34개사(34%)로 나타났으며, 30% 이상~50% 미만 57개사(57%), 30% 미만 9개사(9%)
- 수출의존도가 50%가 넘는 수출국으로는 미국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 8.8%, 베트남/중국/멕시코 각 5.9%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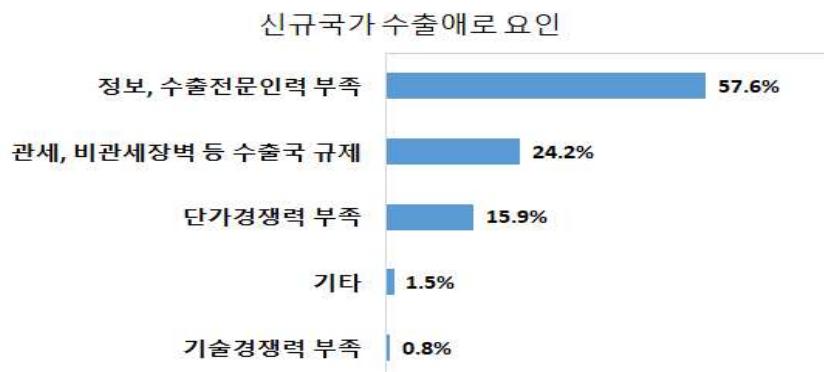


- 최근 3년간 신규국가에 수출한 기업은 14%에 불과
- 최근 3년간 기존 수출국 외 신규국가 수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86개사(86%)로 가장 많았으며 있다고 한 기업은 14개사(14%)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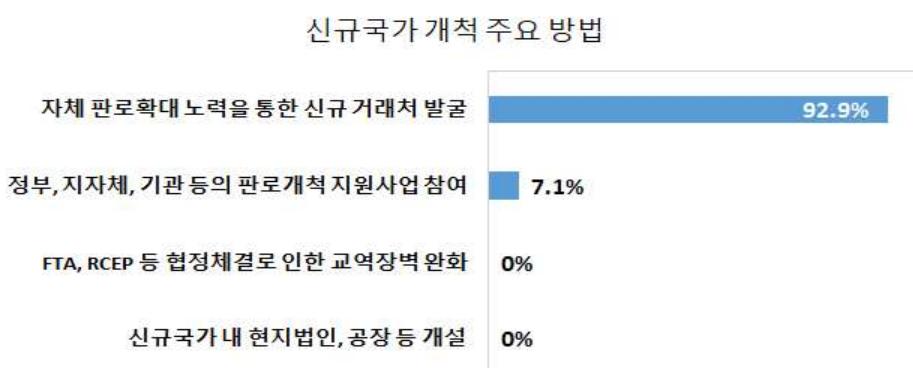
□ 신규시장 개척의 주요 애로는 정보, 수출전문인력 부족

- 최근 3년간 신규국가 수출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애로를 조사한 결과, 정보, 수출전문인력 부족 등이 57.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세/비관세장벽 등 수출국 규제 24.2%, 단가경쟁력 부족 15.9%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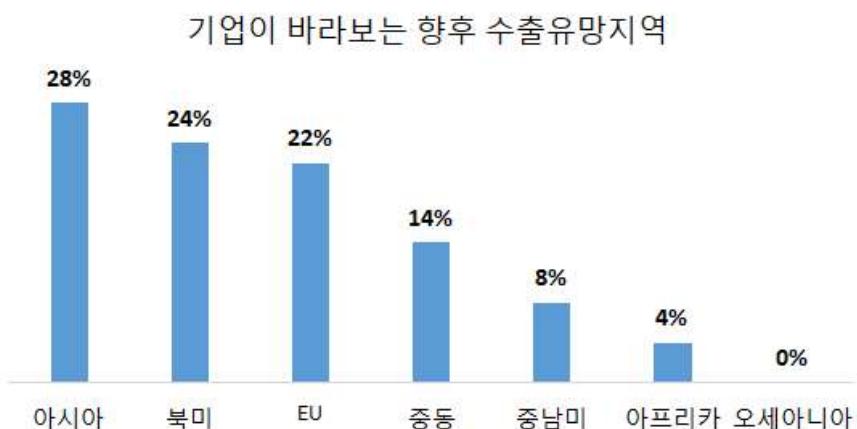
□ 신규시장 개척은 정부 지원이나 통상정책보다는 기업자체 판로확대 노력이 대부분

- 신규국가로 수출을 하게 된 방법으로는 자체 판로확대 노력으로 인한 신규거래처 발굴이 92.9%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 지자체, 기관 등의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인한 경우는 7.1%에 불과. 이 외 FTA, RCEP과 같은 협정체결로 인한 신규국가 개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신규국가 개척 비중이 낮고 그마저도 기업 자체 노력이 대부분인 점은 현행 판로개척 지원사업이나 통상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임



□ 향후 수출 유망지역은 현재 주력 수출지역과 큰 차이 없어

- 향후 수출유망지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시아 28%, 북미 24%, EU 22% 등 현재 주력 수출지역이 여전히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었음. 그 외 중동 14%, 중남미 8%, 아프리카 4% 등 순
 - 다만 중동의 경우 지역의 수출 비중(2023년 기준 5%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향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자체 투자여력이 풍부하고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3.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한 인식

□ 어려운 대외여건 속 글로벌 경쟁은 다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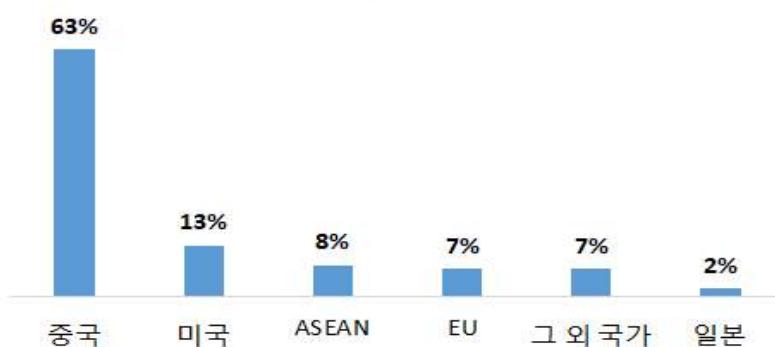
- 지역 주요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조사한 결과 큰 차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70%(7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쟁이 늘었음 28%(28개사), 경쟁이 줄었음 2%(2개사) 등 순
 - 미중 대립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보호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각종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대외 환경 악화



□ 주요 수출경쟁국은 중국

- 주요 수출경쟁국으로는 중국이 63%(6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13%(13개사), ASEAN 8%(8개사), EU 7%(7개사), 그 외 국가 7%(7개사), 일본 2%(2개사) 등 순
 -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자급율을 확대하고 수출 중심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수출 품목과 경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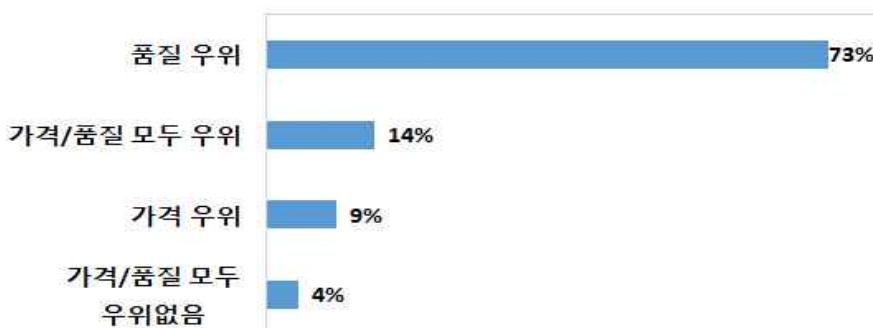
부산지역 주요 수출기업의 수출경쟁국



□ 응답업체의 87%가 해외 수출 경쟁업체 대비 품질 우위를 확보한 반면, 77%는 가격 경쟁력 뒤쳐져

- 해외 수출 경쟁업체 대비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우위부문을 확인한 결과, 품질 우위의 기업이 73%(7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격/품질 모두 우위 14%(14개사), 가격 우위 9%(9개사)이며, 가격/품질 모두 열위에 있는 경우는 4%(4개사)에 불과
 - 품질 경쟁력 대비 가격 경쟁력은 매우 부족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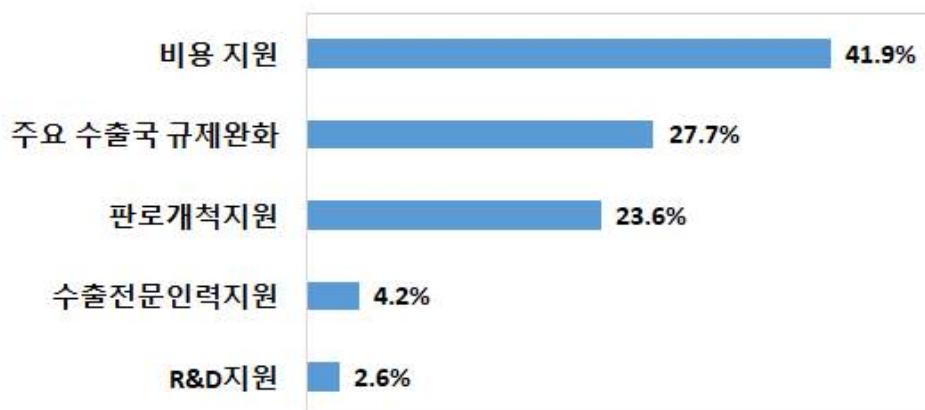
해외 경쟁업체 대비 지역기업 경쟁우위 부문



4.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지원책

- 단기적으로는 비용지원,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수출국 규제완화, 판로개척 지원 요구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지원책으로 비용 지원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요 수출국 규제완화 27.7%, 판로개척 지원 23.6%, R&D지원 2.6% 등 순
 -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가 상승, 운임급등,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열악한 대외 여건 속에서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수출업계의 경우 물류비, 무역보험료 등 비용 지원이 절실한 상황
 -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한 각종 규제에 대한 해소와 신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도 중장기적으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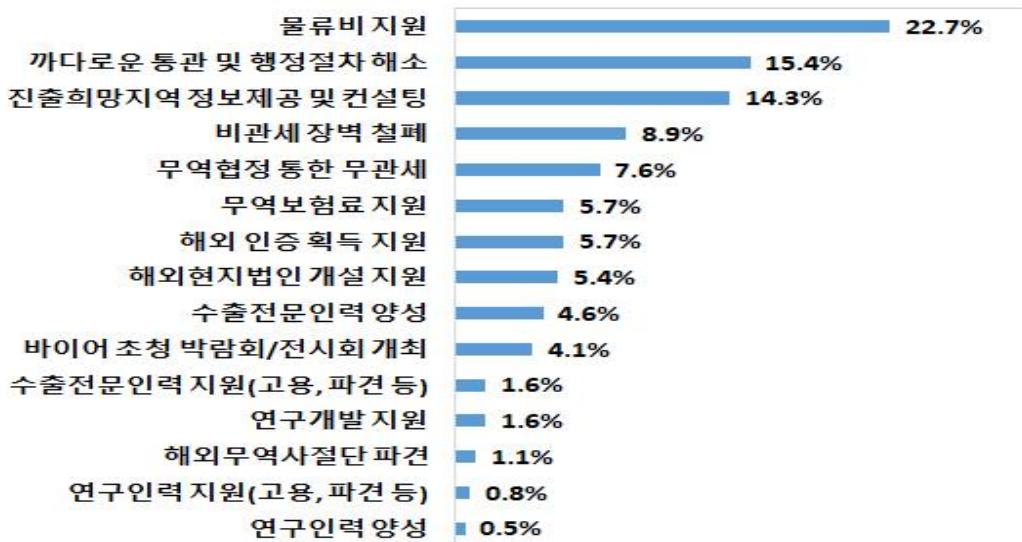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지원책



- 비용지원에는 물류비 지원,
수출국 규제완화에는 까다로운 통관 및 절차 해소,
판로개척 지원에는 진출희망지역 정보제공이 가장 많이 요구됨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지원책으로는 물류비 지원이 2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까다로운 통관 및 행정 절차 해소 15.4%, 진출희망지역 정보제공 및 컨설팅 14.3%, 비관세장벽 철폐 8.9%, 무역협정 통한 무관세 7.6% 등 순

- 이는 홍해 사태, 미-EU의 관세대비 중국 밀어내기 수출 증가 등의 사유로 최근 해상운임이 급등하면서 물류비가 기업 비용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지원책



5. 시사점

- 수출의존도 분산에 무게를 둔 수출 다변화 지원 정책 필요
 - 개별기업 차원의 수출국 다변화 노력은 하고 있으나 특정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 특정국 리스크 발생 시 지역 수출 타격 불가피하므로 수출 의존도 분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수출 다변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지역 수출업계 품질 우수한 반면 가격 경쟁력 취약. 비용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할 필요
 - 지역 수출업계는 해외 수출경쟁업체와 비교해 품질에 우위에 있는 반면 가격경쟁력은 부족한 상황. 또한 주요 수출경쟁국인 중국과의 수출품목에 대한 경합이 심화되고 있어 중국의 기술수준이 향상 될수록 가격경쟁으로 인한 지역 수출업계 부정적 영향 우려

- 특히 단기적으로는 기업비용 증가의 주요 이슈인 해상 운임급등에 대한 기존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가격 경쟁력 상실 해소 필요
- 판로 개척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필요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신시장 개척의 주요 애로사항이 정보부족이며, 판로개척에 대한 주요 정책 요구사항도 진출희망지역의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 또한 신규시장 개척 대부분 기업 자체 판로확대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어 현행 판로개척 지원사업이나 통상정책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